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송 경 섭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기획단장
ksongwww@hanmail.net

강은 무수한 생명체를 잉태하고 부양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강은 인간과 이들 생명체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오랜 옛날부터 물자 수송의 주요한 수상교통로로서 문화가 유출입하는 경로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즉 강과 인간, 강과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공생 관계를 이루는 에로스의 공간이면서 경제·문화의 동맥이기도 하다.

도시는 강과 함께 발전하며 번창한다. 예로부터 발달한 문명은 강과 함께 형성되었다. 풍부한 먹거리가 있고 물자운송이 편리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어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 내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해온 대도시의 성장에도 강은 매우 주요한 요소였다. 런던에는 템즈강이, 파리에는 세느강이, 동경에는 스미다강이 있듯이 서울에는 한강이 흐른다. 한강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발전 과정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며, 세계12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기적을 잉태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는 강이기도 하다. 근대화에 의해 주도된 서울의 압축된 도시성장과정은 한강을 동서, 남북의 이중적 단절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강의 안전한 치수를 위해 도입된 콘크리트 호안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강변의 도시고속도로는 강과의 소통을 차단하며 무질서한 건물들이 강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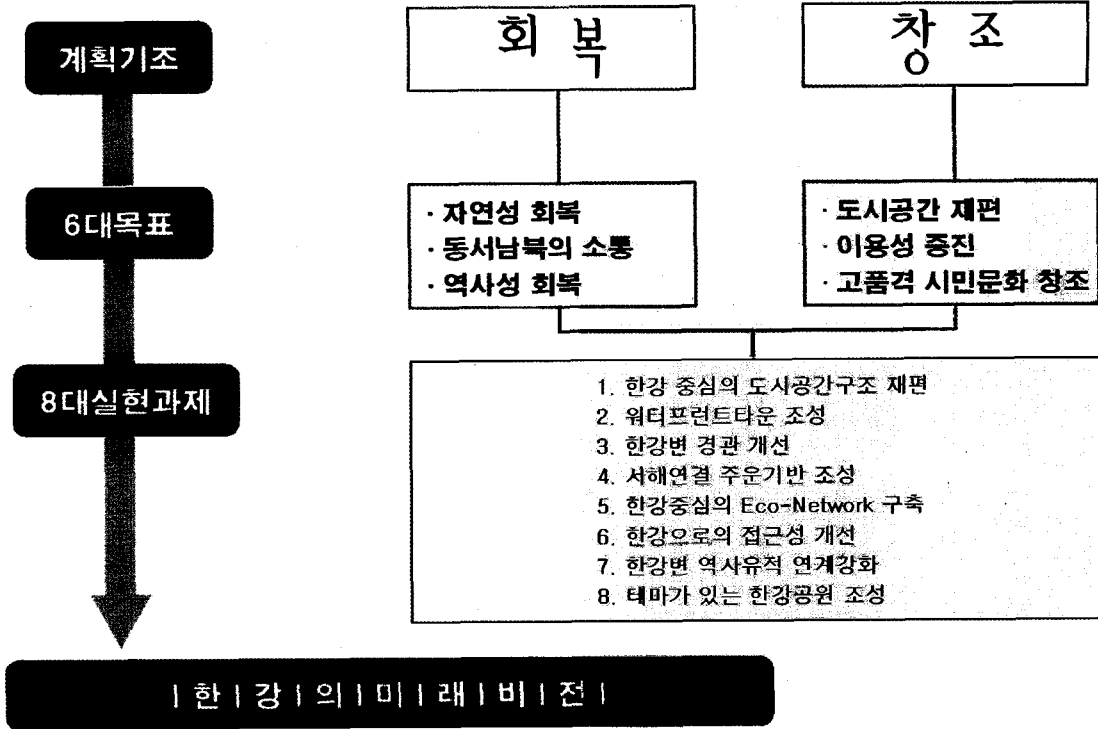
름다움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이유에 의해 서해로 나가는 뱃길마저 단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강의 현안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21C 강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한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선4기 핵심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7월초에 한강을 치수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이수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치창출을 통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하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자문과 검토, 국제 학술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토론과정을 거쳐 한강을 중심으로 20년후의 서울의 미래상이 담긴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회복과 창조”라는 기초하에 설정된 분야별 목표와 이들 목표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들을 통해 구현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평화의 강, 생명의 강, 공생의 강으로써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 한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한강의 미래 비전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완료이후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한강 전체와 주변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20년 기간을 통해 권역별, 단계별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계획이며, 회복과 창조라는 기본 원칙하에 수정·보완·발전되어 가는 유연한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는 사람·자연 사이의 훼손된 관계를 되찾고 서해로 나가는 뱃길을 열면서 한편으로는 한강이 갖는 가능성과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여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한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적 명소 한강 평화의 강, 생명의 강, 공생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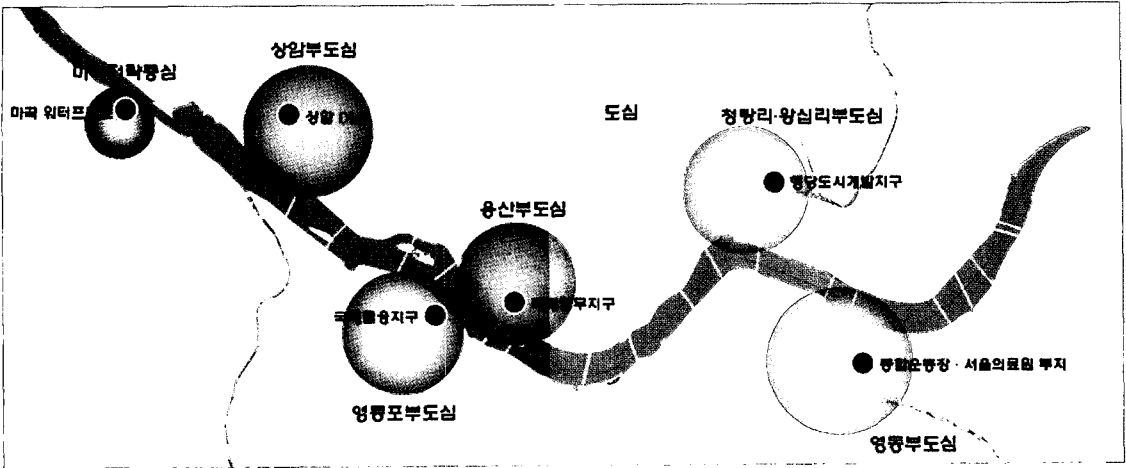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개요〉

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8대 실현과제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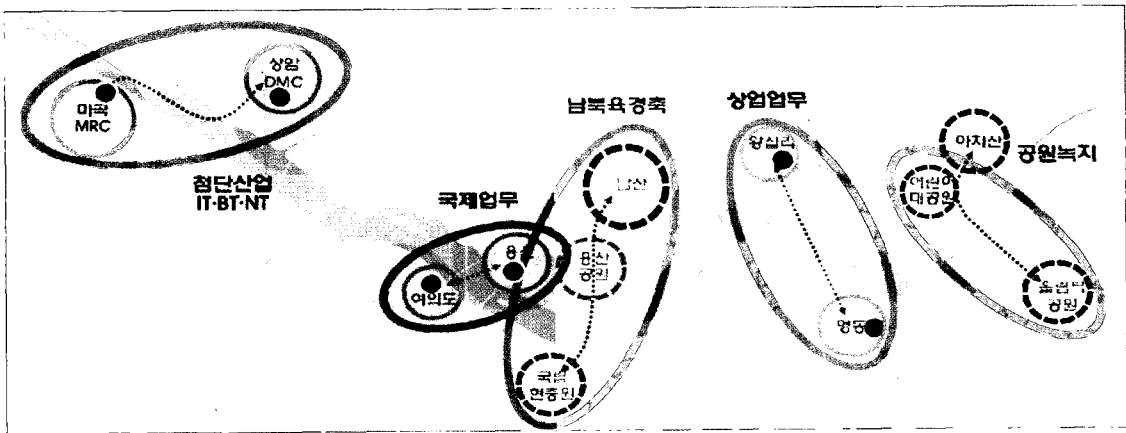
첫째 과제인 “한강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은 사실상 한강이 제외되었지만 새로이 수립하는 한강의 주운계획이 반영된 쾌적한 Waterfront town을 개발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의 공간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한강변 영등포·용산·상암·영동 등 부도심권을 한강변까지 확장·육성하고, 마곡지구의 경우 배후지의 첨단 연구단지과 연계한 전략중심지로 육성하며, 이들 주요한 한강변 강남·북 발전거점들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실현과제인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계획은 한강변의 도시공간이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토지이용변화와 연계하여 물과 직접 닿는 Waterfront형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계획이다. 워터프런트 타운은 기본적으로 관광·여객 등 한강주운과 연계되고 수변공간을 공공 및 복합용도로 활용을 극대화시키면서 상징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서울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지로는 마곡·상암·당인리·여의도·용산·흑석·행당·잠실 등 8개소를 후보지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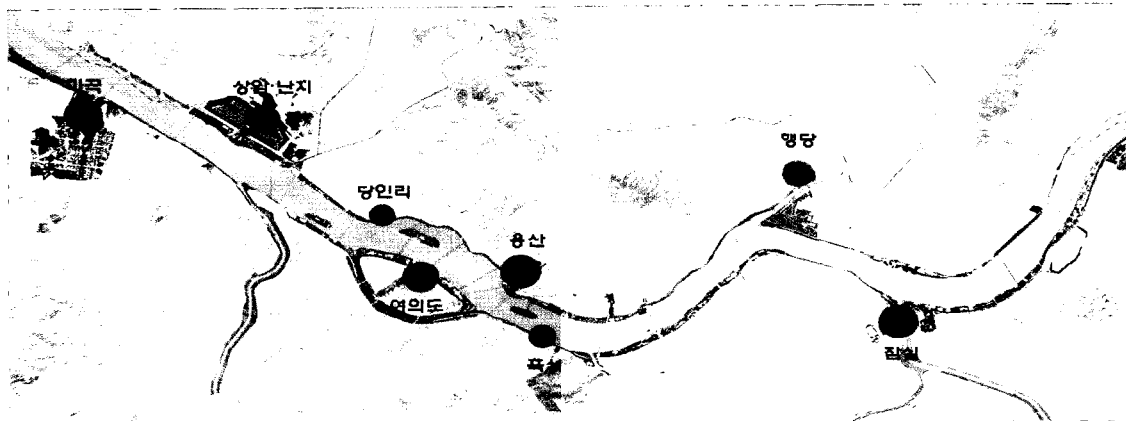
셋째 과제는 한강과 수변의 풍경을 더욱 더 아름답게 하는 “한강변 경관개선”사업이다. 한강변의



〈한강변 중심성 강화〉



〈강남·북 발전거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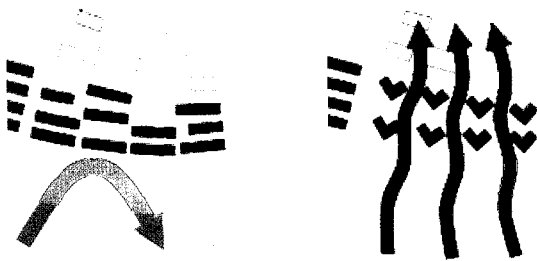
〈워터프린트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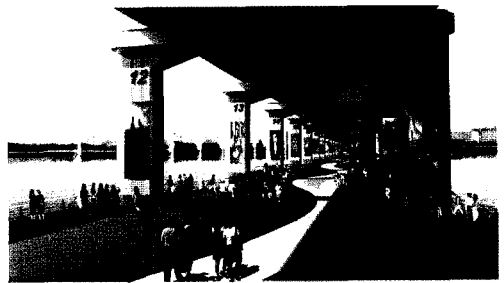
〈마곡 - 현황〉



〈마곡 - 조성후〉



〈시각회랑 및 바람길 확보〉



〈잠수교 광장 갤러리〉

단조로운 병풍식 아파트의 외관을 개선하면서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고, 시각회랑 및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한 한강변 건축물의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강 안팎을 아우르고 한강의 아름다운 선형이 드러나는 야간조명을 시행하는 한편 강변의 교각, 옹벽 등 각종 구조물도 도시갤러리 개념을 접목시켜 한강변의 경관을 대폭 개선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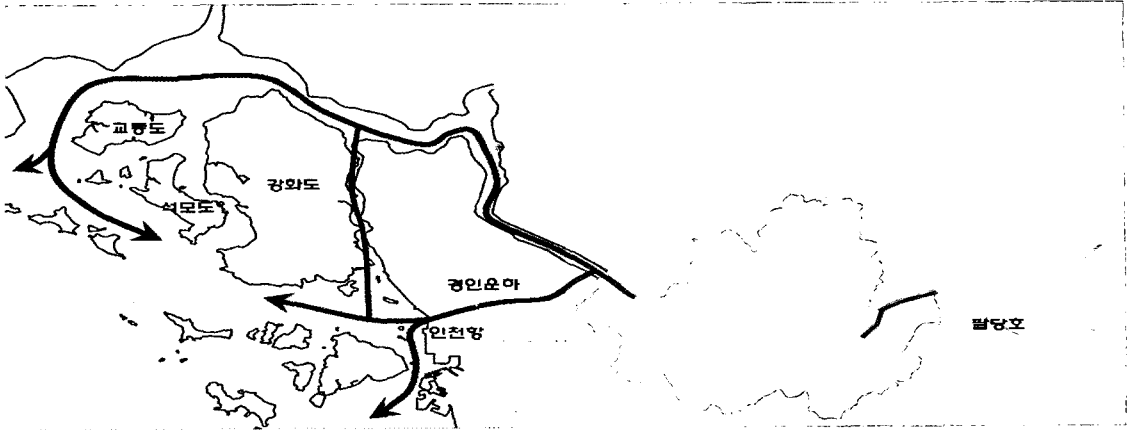
넷째 과제는 서해연결 “뱃길의 회복”이다. 닫혀있는 서해로의 뱃길 회복을 통해 남북간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을 “항구 도시”로 발전시켜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운수로의 확보, 광역터미널 설치, 운행여건에 적합한 선박 도입, 마리나 및 선착장 등의 확충, 교통망 체계 개편 등 세부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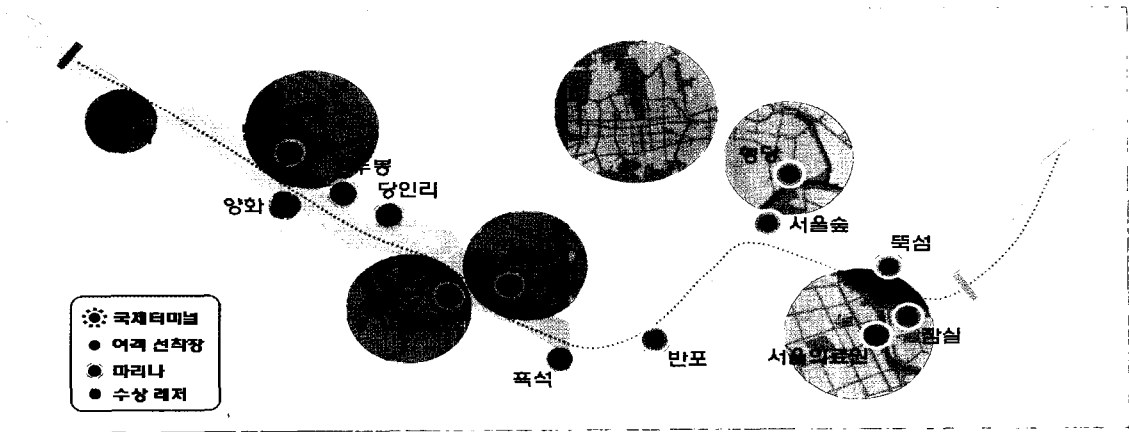
다섯째 한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자연성복원” 계획이다. 한강과 지천을 아우르는 동서·남북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천 합류부등 생태거점 지역을 대폭 확충·연계함으로써 한강 전체가 자연성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86%에 이르는 콘크리트 호안을 뒤바꿔 87%까지 자연형 호안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한강과 연결되는 14개 지천의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시 전역을 Eco-Network화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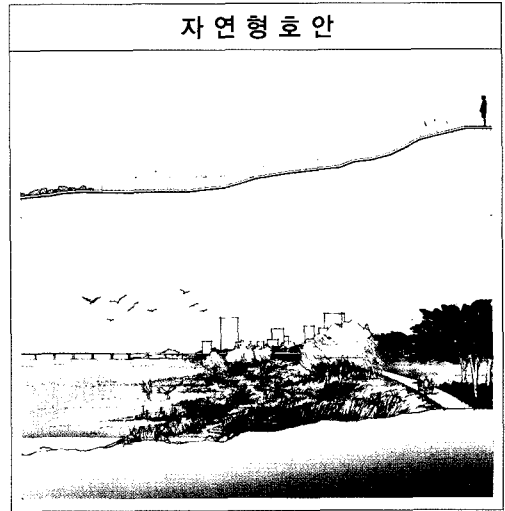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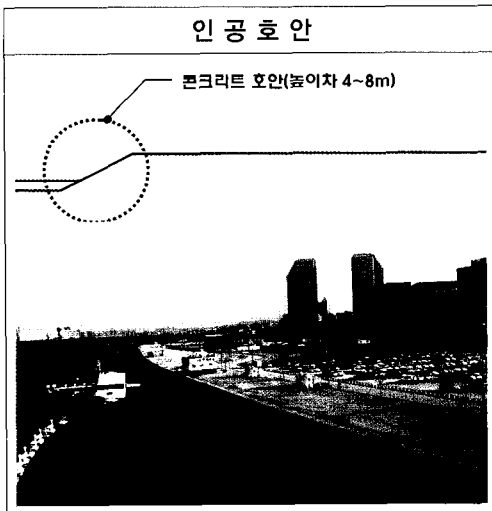
여섯째 실현과제는 한강이 시민걸로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접근성 향상” 부문이다. 현재의 지하철로에서 지상의 보행로도 한강으로의 접근방식을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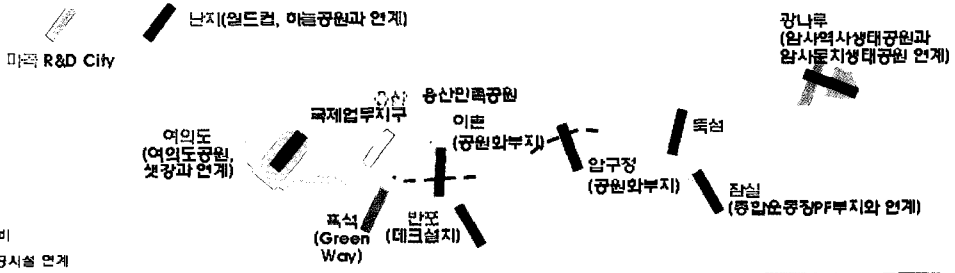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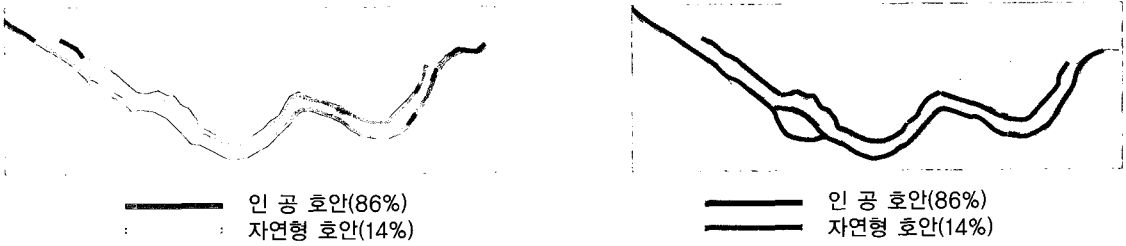


<서해연결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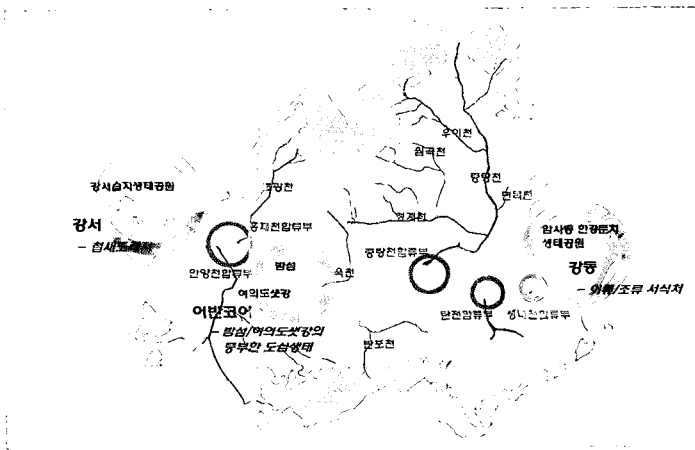


<광역터미널, 선착장 위치도>





<보행녹도 조성 대상지>



<동서 생태녹지축 및 시 전역 Eco-Network>

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한강 교량상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직접 한강공원을 연결하고, 한강 주변의 버스·지하철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기존 접근도로의 환경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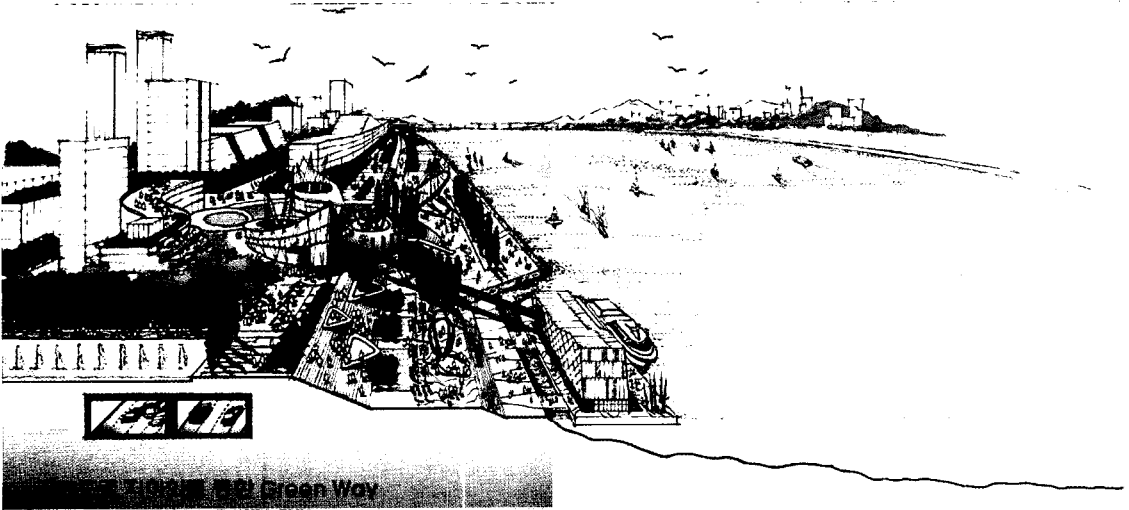
일곱째 한강변의 역사유적을 보다 다양하게 체

험·교육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성을 갖는 문화유적과 한강유적을 역사거리, 보행연결로 조성 등을 통해 한강변 역사유적을 보다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한강공원내에 주변 역사유적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및 역사관련 박물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사문화, 교육체험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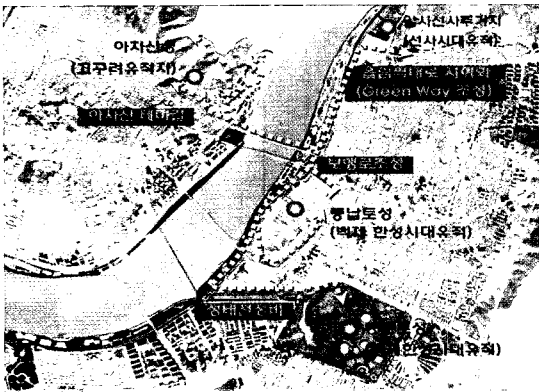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서울의 상징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계획이다. 한강공원

주변배후지의 토지이용 특성, 시민의 이용패턴, 경제적·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고려, 권역별로 테마에 걸 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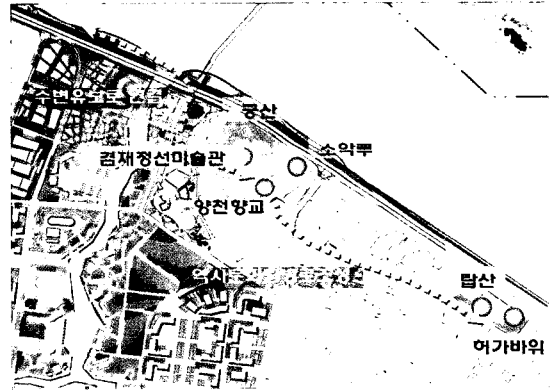
한강 둔치는 치수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상시 물과 접하는 저수호안은 친수·생태형으로 강화하고 제방 측에는 일부 성토를 하여 홍수 시 침수를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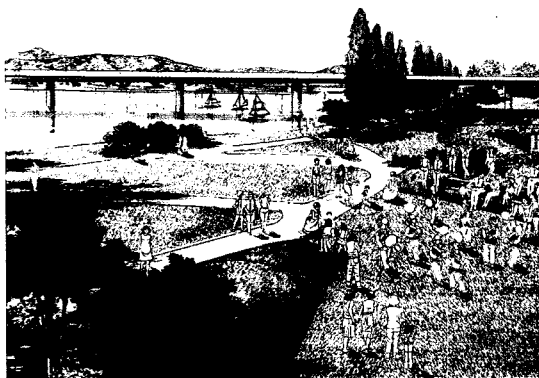
〈지상 보행복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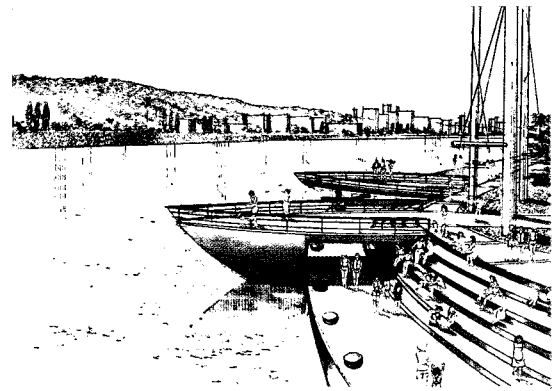
〈예시 - 강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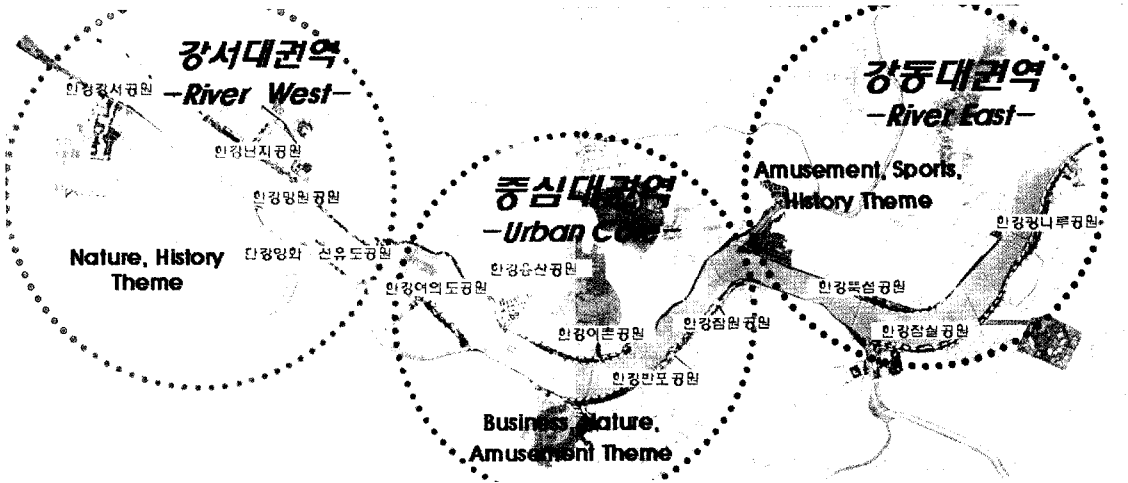
〈예시 - 강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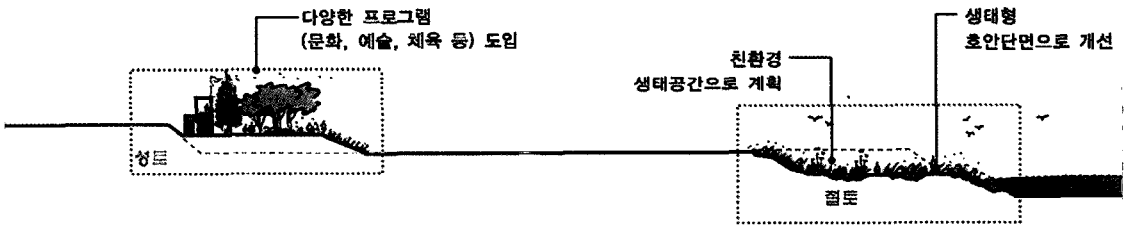
〈예시 - 풍납토성 테마파크〉



〈예시 - 마포나루 테마파크〉



〈대권역 구분〉



〈둔치 단면구조 개선 개념도〉

화하여 보다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도시에서 하천의 건강한 자연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녹음이 풍성한 숲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이벤트 등이 항상 열리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바뀌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단순한 치수 역할에 머물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한강, 있는 그대로 바라만 보는 한강도 나름대로는 멋이 있겠지만 이제는우리도 두바이의 기적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게 할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재조명하여 21세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서울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수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강르네

상스가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우리가 꿈꾸는 한강의 미래모습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가 완성되는 20년후에는 한강의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명실공히 세계속의 한강, 세계 초일류 항구도시 서울의 상징공간으로서의 한강의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풍요로운 문화의 도시, 서울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아름다운 한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수변도시 서울, 한강 르네상스로 서울이 다시 태어나리라 확신한다. (A)